

# 南濟州郡 城山邑 水山里

現地學術調查

1993. 8. 3~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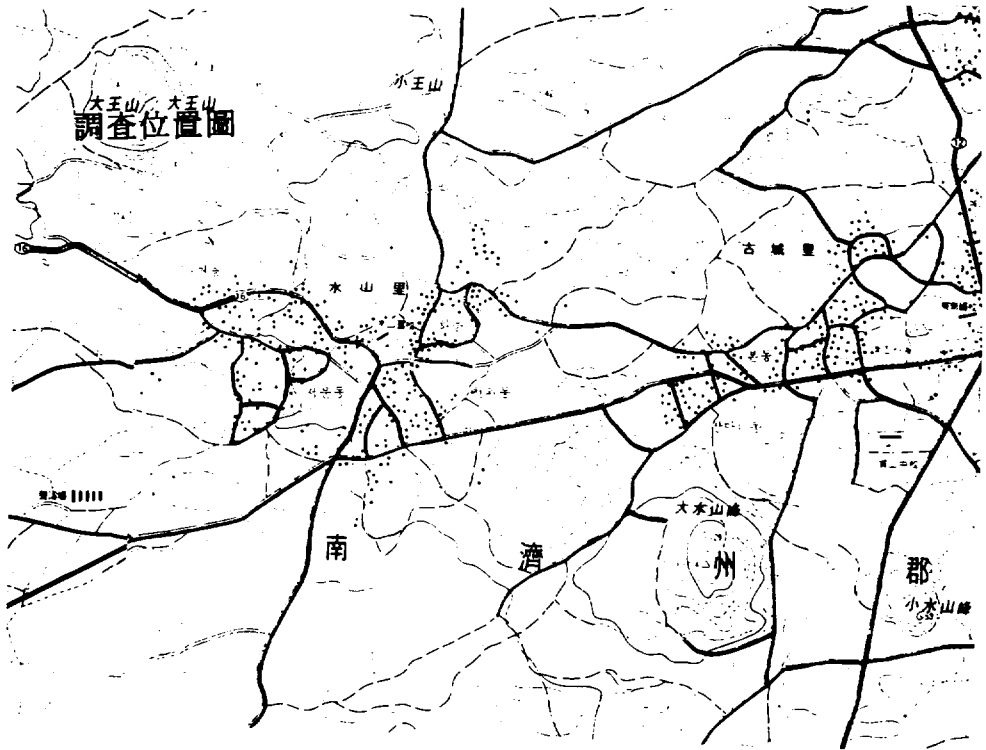
社會背景 (145)

方言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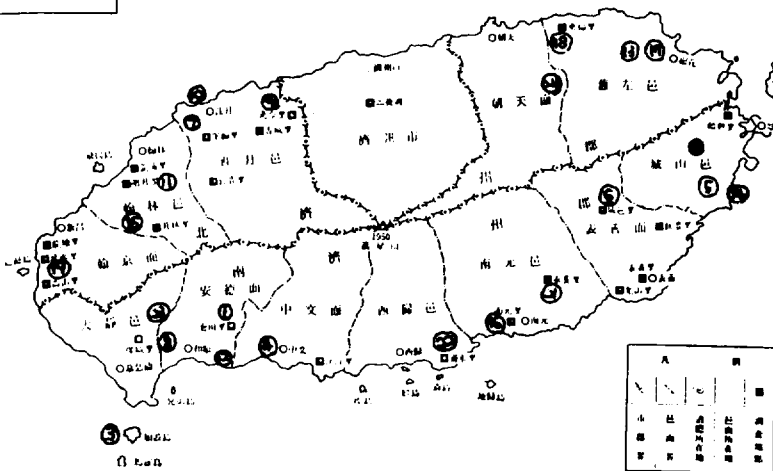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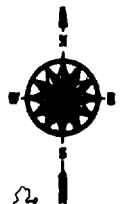
民謠 (169)

說話 (197)

信仰 (201)



調查地點圖





수산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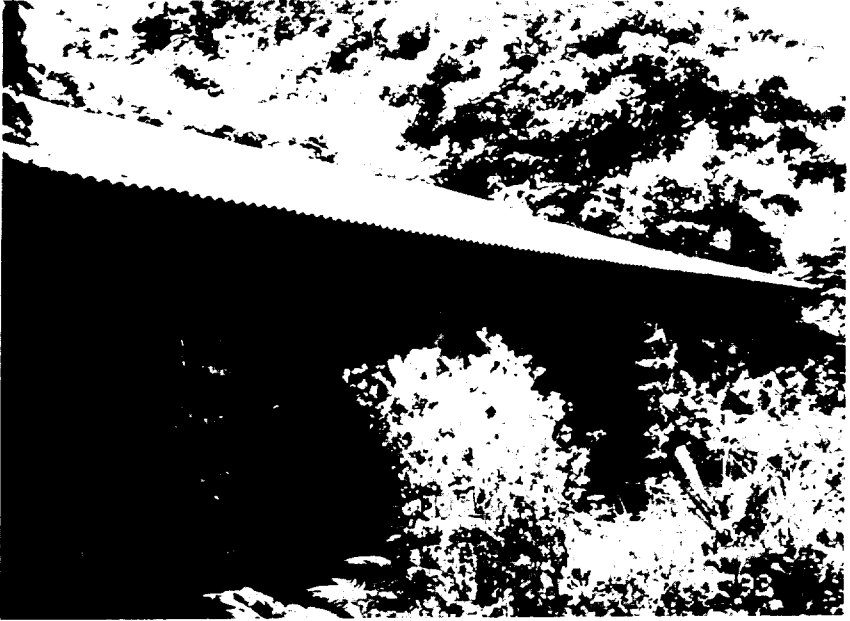
수산 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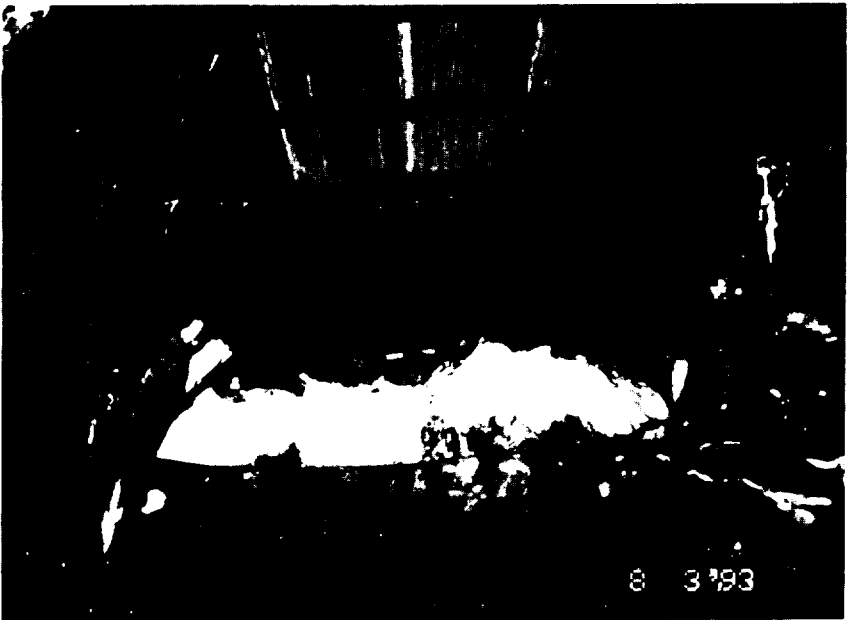
포젯단



홍효자비



하로산당(수산 본향당)



진안할망당



반별모임



조사광경

## 調 査 經 緯

현지 학술조사는 국어국문학과와 중요 학술사업의 하나로 지역내 삶의 현장에 접근하여 그 지역에서 영위되는 언어, 구비문학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즉 학술조사는 지역문화의 발굴 및 보존, 고향문화에 대한 애착, 국어국문학과 구성원간의 친목도모라는 점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현지조사의 종류에는 산발적 조사, 개괄적 조사, 심층적 조사가 있다. 현지 학술조사는 개괄적 조사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사이되, 자료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예사이다. 따라서 학술조사는 전문가의 계획과 지도에 따라서 비전문가가 다수 참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이다. 현지 학술조사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에 따라서 이론과 실재를 잘 융합하여 행해짐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조하면서 강의실에서와는 달리 가장 효과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지 학술조사는 살아 있는 교육현장일 수 있는 것이다.

현지 학술조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 삶의 현장에 응용해 봄으로써 살아있는 학습, 연구가 되게 하며, 둘째 사회배경, 방언, 설화, 신앙, 민요 등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심층 이해함과 동시에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넓히며, 셋째 구비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주제나 가설을 구체화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점, 넷째 학생들이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조하면서 살아있는 학습을 하게됨으로 해서 준전문가로 양성된다는 것이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러한 의의 아래 1972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를 시작으로 해서 1992년 남제주군 대정읍 구역리에 이르기까지 13회 학술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의 학술조사는 1993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 4일 동안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을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일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향토지

가 나오는 지역 등을 제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사지역 선정에 들어갔다. 교수님,동문선배님 등으로부터 조언을 듣고나서 조사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였다. 이 곳에서 학술조사가 행해진 지역과 인근지역,마을지가 나오는 지역 등을 제외하였다. 나중까지 거론된 곳은 성산읍 수산리와 신천리,한경면 낙천리였는데 신천리는 마을의 발전정도가 심해서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마을의 역사가 짧았다. 또 낙천리는 학교와 할망당 등이 없어서 숙식과 신앙조사가 문제시되었다. 2회에 걸친 예비답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산읍 수산리로 결정했다. 학부에서의 학술조사가 갖는 한계와 문제로 인하여 수산리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학술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조사되어야 하겠다.

성산읍 수산리는 성산읍에서 가장 큰 마을이고 역사가 오래되어서 사회배경, 방언,설화, 민요,신앙 등에 걸친 조사가 가장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지역선정이 끝난 후에 우리는 2회에 걸친 사전답사를 통해 마을개황과 풍속,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조사를 하였다.

조사지역이 결정되자 반편성에 들어갔는데,예전과 마찬가지로 사회배경, 방언, 설화, 민요, 신앙으로 나누었다. 반장들을 중심으로 사전자료집을 만들었고 현지 학술조사의 이해를 위해서 각 반별로 예비모임을 가졌다.

3박 4일간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3일 (제 1일) : 10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학교차량을 이용하여 12시에 수산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입소식과 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 청취,그리고 각 반별로 조사준비에 들어가서 1차조사에 나섰다.

8월 4일 (제 2일) : 2차, 3차, 4차 조사에 나섰으며 저녁에는 하루 조사의 결과에 대한 반별토론을 가졌다.

8월 5일 (제 3일) : 5차, 6차 조사가 있었으며 저녁에는 주민,동문,재학생 등이 함께하는 전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8월 6일 (제 4일) : 마무리 조사가 있었는데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농친 점이라든가 제보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숙소였던 수산국민학교를 청소하고 전체일정을 마무리했다.



# 社會背景

指導教授 : 김병택 김상조

指導補助 : 김동운 김경보 김옥주

班 員 : 고은진(4) 박은정(3) 김원태(3)

강나리(3) 지선희(3) 홍창희(2)

강문중(1)

I. 地理的 環境

II. 歷史的 環境

III. 人文 概況

IV. 產業構造

## I. 地理的 環境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는 동남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고성리, 남쪽으로 온평리, 남서쪽으로 난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제주시와는 55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버스 이용시 제주시에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예전부터 제주목과 정의현을 잇는 길목으로 도로가 발전되었는데 지금도 중산간 깊숙히 위치한 마을치고는 도로 계획이 잘되어 있고 최근 중산간 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은 더욱 발달하였다.

성삼읍은 법정리 11개, 행정리 14개, 자연부락 2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산리는 행정상 1,2리로 나뉘어 있고 자연부락인 동동, 서동, 하동, 천외동, 하천동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수산리는 하기에 동남계절풍지대에 속하고 동기에는 북서계절풍지대에 속한다. 8-9월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이 자주 지나 농작물 피해를 받는다. 강수량은 1500-2000mm로 넉넉한 편이다.

마을의 면적은 총 2618.9ha로 전이 497.9ha, 과수원이 1501.7ha이다.

구분	전	과수원	임야	기타	비고
면적	497.9	239.1	1501.7	380.2	

(93년 6월 성삼읍 사무소)

마을의 주요 지명으로는 기생화산으로 가장 높은 대왕산을 비롯하여 남거봉, 궁대악, 뒤고부니(후대봉)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누루못, 한질굿못, 성앞못, 폭남못, 한못 등 작은 못이 많아 오래 전부터 인가가 있고 목축이 발달했음을 짐작케 한다. 현재는 수도가 거의 100% 보급되어 80년대 이후에는 쓸모없게 된 못을 막아 메말라 그 흔적만이 남아 있고 수산벌에 있는 한못 정도가 지금도 가축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벌무루, 보자물, 팡다리미터, 기시미터, 남드리가름, 이전물동산, 알못, 돛당 등 작은 동산들이 역사를 담은 채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잡고 있다.

## II. 歷史的 環境

수산리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주하여 와서 어느 곳에서 먼저 실촌이 되었

는 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다.

지배적 의견으로는 약 600년 전 강씨가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데, 그 이후로 고씨, 오씨 등이 입주하여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광활한 목초지와 곳곳에 널려 있는 못에 기인한 듯하다.

현재 마을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으로는 송당과 고성을 잇는 큰 도로 한가운데 우뚝 솟아 마을 지키는 후박나무의 400년 수명과 넓은 수산벌에 산재한 고려시대 무덤 양식인 방묘, 지석묘 등이 역사 추정을 위한 모두인 것이다.

불분명한 마을 역사와 함께 마을 명칭의 한자 표기에 있어 水山과 首山の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水山을 사용하고 있다. 옛문헌에서 고려때는 首山으로 조선때는 水山으로 지칭되었다. 하지만 '세종 21년(1439) 接撫使 韓承舜이 조정의 명에 따라 水山防護所를 설치하여 제주도 동쪽의 예구 침범을 막기 위하여 수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그 유적이 현재 수산국민학교 울타리로 남아 있어서 水山이라는 명칭이 최소한 조선 초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대사에서 큰 사건인 4.3으로 인한 피해가 이 마을에도 있었다. 1948년 5.10 선거 때 3인의 공비 침투로 선거는 치룰 수 없게 되었고, 좌,우익의 대립은 무지했던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죄없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폭도와 군경 사이에서 1리의 경우에는 성산읍에 있는 군경과 정보를 교류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야로 마을지키기에 힘을 써서 별 피해가 없었음에 반해, 중산간 깊숙히 위치한 수산 2리의 경우에는 폭도와의 내통의 혐의를 받고 군경에 의해 하루 아침에 소개되었다. 70여가구였던 주민들은 주변의 고성,신양, 오조리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1954년 행정당국의 지원과 이웃 마을의 협조로 폐허가 된 마을의 복구되었고 당시 34세대가 정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Ⅲ. 人文 概況

수산리는 '92년 12월 31일 현재 총 379가구에 인구는 1483명이다. 총 인구 중 성별로는 남자 739명, 여자 747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다. 수산리의 인구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세 대 수		인 구	남	여
	1리	2리			
92년 12월	1리	311	1194	586	608
	2리	(68)	289	150	139
86년 12월	1리	315	1514	729	788
	2리	67	289	150	139
82년 12월	1리	338	1626	799	827
	2리	71	346	175	171
79년 10월	1리	384	1712	842	870
	2리	65	360	181	179
76년 10월	1리	341	1682	795	887
	2리	65	344	178	166

(성산읍 사무소)

<표 2>를 통해 70년대에서 90년대 인구추이를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인구수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90년대에 들어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민학생수의 감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수산리에 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를 감안할 때 마을은 더 적막하게 느껴진다.

수산리에는 20여 성씨가 분포되어 있는데 성씨별 가구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성씨	고	강	오	김	한	조	정	부	박	양	현	이	진
수산 1리	62	59	59	44	22	7	6	4	3	3	3	2	1

위의 표에서 보면 주요 성씨는 고, 강, 오, 김, 한씨 순이다. 그 외에 조, 정, 부, 박씨 등이 1-7가구씩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씨족마을임을 알 수 있다. 수산국민학교는 1946년에 개교하여 1951년 1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 년도	51	55	60	65	68	70	75	80	85	90	91	92	93
학생 수	45	35	26	29	53	37	60	52	57	22	29	17	22

(수산국민학교 자료)

70년대 이전 졸업생수를 살펴보면 가장 적을 때가 66년 때에 26명이고 가장 많을 때가 75년 때에 60명이었다. 그리고 생활이 개선되기 시작한 70년대, 80년대에는 대개 50-70명 정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90년에서 현재까지 학생수를 살펴보면 이농현상과 가족계획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2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분교로의 전락위기에 놓여있다.

마을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아 국민학교 시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아름다운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로는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원로회, 향우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대부분의 마을부녀자들이 가담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협쌀 판매, 마을 청소 등 자잘한 일과에서 2년에 한번씩 경로잔치를 열어 뜻있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산리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큰 사회 문제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중산간 개발 문제가 서서히 일고 있다.

앞으로 리주민들이 단합되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각종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 IV. 産業構造

수산리의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산리의 주요 소득 사업은 <표 5>와 같다.

종목 소득액	감귤	콩	팥	유채	맥주맥	감자	당근	축산
수산1리	3110	298	16	325	73	6	7	190
수산2리	660	60	8	53	14			60

(단위 : 백만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산물은 감귤로 거의 모든 수입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밭농사인 유채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 유채는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토양에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량이 줄어들고 값이 싼 수입물로 대체 되고 있어 수지가 맞지 않아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다.

감귤농사로 지금의 부유한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UR협상으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머지 않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한 형편이다. 중산간 지역의 넓은 목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 소사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가축사육현황은 <표 6>과 같다.

종류		소	젖소	말	닭	돼지	산양	꿀벌	개
농가수	농가수	44		2	1		5	1	113
	마리수	211		9	15050		458	5	133
수산	농가수	50	1	1	3	1			15
	마리수	312	6	32	24000	300			16

( 93년 6월 리사무소 통계 )

축산은 고려시대부터 행해져 역사가 깊은 것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주민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운영한다면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넓은 방목지의 9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과 발농사, 가축사육 등 여러 고소득 농사로 농기구 보유현황도 <표 7>에서 보듯이 그에 맞게 풍족한 편이다.

마을	경운기	관리기	트랙타	동력절	탈곡기	예퇴기	분무기	과일선	착유기
1리	178	54	1	8	2	9	180	11	0
2리	40	16	0	7	4	4	40	2	1

(92년말 리사무소)

이 외에 미미하나마 상업활동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잡화점 4개, 식당 2개가 있고 정미소, 식육점, 재골집 이발소가 각각 1개씩 있다.

# 方 言

指導教授 : 강영봉

指導補助 : 오창명, 송상조

班 員 : 이은정(3), 허성미(3), 고명훈(3)

양인자(4), 이은주(2), 김유미(2)

김종선(2), 송순렬(2), 변희숙(1)

윤수정(1), 이영웅(1), 문석호(1)

강현이(1), 박소영(1)

## I. 조사경위 및 기술 방법

### II. 조사 어휘 분류

- |        |                |
|--------|----------------|
| 1. 동물명 | 5. 농기구, 가재 기구명 |
| 2. 식물명 | 6. 놀이명         |
| 3. 지명  | 7. 기타          |
| 4. 음식명 |                |

## I. 조사경위 및 기술방법

본 보고서는 199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서 조사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원들의 의논 하에 결정된 동물명,



식물명, 지명, 음식명, 농기구명, 놀이명, 그리고 조사하는 상황에서 구연된 의성의태어와 일상 속담 몇 가지가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은 원래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사하면서 덧붙여 얻어 낼 수 있었다.

조사전 사전답사에서 수산리에 대한 디락적인 역사와 배경을 조사하고 제보자들과 조사에 요긴한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반원 예비모임을 가져 조사할 내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사전 학습을 하였으며, 향토자료실에서 찾아낸 책자(박용후 「제주방언연구」,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를 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도 쉬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들여다 보았다.

조사는 네 차례에 걸쳐 행하였는데, 첫날(8월 3일), 1차로 김봉선 할아버지(85세)댁을 방문하여 할머니(한계옥, 85세) 내외분으로부터 동물명, 식물명, 음식명, 농기구명을 조사하였다. 둘째날(4일), 2차로 매미가 신나게 울어제치는 나무 그늘에서 강창부 할아버지(76세)와 김태표 할아버지(64세)로부터 동물명, 식물명, 음식명, 놀이명, 농기구명을 조사하였고, 점심식사 후 강창익 할아버지(71세) 댁에서 지명을 중심으로 동·식물명,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음식명, 놀이명을 조사(3차)하였다. 그리고 셋째날(5일)은 수산2리로 넘어가서 밭으로 돌아오시는 오애생 할머니(64세)를 길에서 만나 수산2리 일대의 지명과 놀이명, 음식명, 식물명을 마지막 조사로 얻어 냈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보는 녹음과 기록을 함께 하였는데, 구연상황에서 정확히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은 정리 시간에 테잎은 돌려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자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질문지도 마련하지 못했고, 동물도감이나 식물도감 등의 기본적인 자료도 준비하지 못하여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본 보고서는 수산리 방언을 적고 표준어와 비교하거나 설명을 짚막하게 해 놓았다. IPA 표기는 생략하였고, 표준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방언만 기록하였다. 특히 지명은 토지대장을 애써 전사하기도 했으나 그 이름들에 얽힌 유래를 제보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거의 명칭만 적었다. (가나다 순으로 기록)

## II. 조사 어휘 분류

### 1. 동물명 (가축, 곤충 등)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고
가가비(가개비)	개구리	
가라물		검은 말
개배리		곤충류
검은쇠		검은 소
개오리	지렁이	
개우눈		눈이 안으로 기어든 소, 흰자위가 환히 드러나 보이는 소.
고망독새		담구멍으로 다니는 작은 새
풀리눈		한 쪽 눈이 흰 말
굽새		등이 튀어난 말.
굽뺑이	굽뺑이	메미의 유충
구부랑이		등이 굽은 말
노리	노루	
노린쇠		황색 소
누네누니(맹이누니)	하루살이	
누룩총이		총이 섞인 말
눈 까전 거		눈이 하나 없는 말.
둑박생이		새 종류
돛줄래	뺑	
두랭이		보리 수확 후 풀에 흔히 보이는 벌레
두매기	퐁땡이	
두채비	두꺼비	
말축	메뚜기따위	공중말축(공쟁이) : 귀뚜라미 심방말축 : 방아깨비

멩마구리	멩꿩이	
물자리	잠자리	
물떼기	독사	
밥주리새	참새	
백메(백마)		흰 말
버꿩새	빼꾸기	
복시다리		자연적으로 다리가 잘못된 병신 소, 말
빙애기	병아리	
사롱이		한 쪽 눈이 까진 말
생이	새	
샛범		노란 색깔의 작은 뱀.
소곰바치	갯장구	
	/버마제비	
쇠주꾸리		과수원에 주로 서식하는 새 종류
숙		산고양이
숙쇠		검은색, 노란색, 흰색, 등 여러 색깔이 섞이 털을 가진 소.
어럭쇠	얼룩소	
율라		흑백색이 섞인 얼룩말
유마물		총이 검고 네 다리에 하얀 털이 있는 갈색 말
자리	매미	뾰자리, 왕자리, 고지각자리
적다물		붉은 색 말
접진다리		다리가 탈구된 말, 소
정롱이		사팔뜨기 눈을 가진 소
제메(제마)		네 발로 발발거리며 달려서 요동이 심하지 않은 말
족발이		발굽이 하얀 말
		앞족발이 : 발굽 두 개가 하얀 말
		수족발이 : 발굽 모두 하얀 말

족제비 주녕이 줄래(괘빙애기) 지다리 지달싸다  지지랭이 주치 청총이  총데기 총매 태성배기 하늘강생이 화동이	족제비 지네      자벌레      땅강아지	닭내장을 미끼로 사냥했다고 함  날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의 새끼꿩 너구리의 한 가지 말이나 소의 앞발과 뒷발 하나를 묶어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말  흑백색이 섞이며 푸른 빛이 있고 총이 검은 말 참새 종류 흰색 노란색이 섞인 털을 가진 말 이마에 흰부분이 있는 말  활모양으로 등허리가 굽은 말
---	--	---

2. 식물명 (작물, 나무, 풀, 열매 등)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 고
가시남 가매기꽃  간절미 (뽕가시남열매) 감저 검쪽남 계유 고니새비 고치풀 구럼비남	가시나무    고구마	팽나무 열매, 길쭉한 모양으로 검게 익 음. 구지뽕 나무 열매  검은 열매가 달리는 팽나무 풀 이름

굴무기(굴묵남)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것으로서 최고의 나무로 칭.
그라지		조팔에 나는 김 종류
놈뻬	무	
누룩남	후박나무	
닥남	닥나무	빨간색 열매가 달리는 나무로 껍질은 제지용으로 씀.
단지누물		
대우리	귀리	보리밭에 나는 풀.
대축	수수	사탕대축 : 사탕수수 강낭대축 : 옥수수 나무 누룽대축 : 빗자루 재료 종모양의 자주색 꽃이 피는 덩굴
더덕꽃		
도꼬리남	쨍래나무	
도채비꽃	산수국	
돔박남	동백나무	
두래기		산에 주로 있는 줄기 식물.
드래남	다래나무	
독자굴		콩밭에 나는 김 종류
멀리	머루	
멜레기(멜라기)		청미래 덩굴의 열매
멜순		채소 종류
모물	메밀	
모신뽕		갯잎 비슷하게 생긴 풀 나무
몰오줌남	사철나무	
몰쿨남(몰쿠실남)	털구슬나무	
박하	박하	여름에 담자색, 백색꽃이 피는 풀 약재나 향료로 쓰임.
보리	보리	술루리 : 쌀보리

본지남	노박덩굴	질루리:이삭이 둥글하게 작은 보리 짱보리 맥주맥
블래남	보리수나무	막개블래 :봄에 익는 열매가 큰 것 춤블래 : 가을에 익는 작은 것
비자남	비자나무	
빈네	피막이풀	조팔에 나는 김 종류
사대기남		
산디	발벼	
세오래비 (사오래비)		
생이윗줄		
세		지붕을 만들 때 재료로 쓰이는 것
속	띠	
솔남 (소남)	쭈	
신남	소나무	새가 잘 먹는 빨간 열매가 달리는 나무 질긴 풀 종류. 노루사냥할 때 새끼를 쫓 아서 멧으로 사용함.
신들남		
수가외	소귀나무	
쑤매약개		보리밭에 나는 김 종류
쑤개풀		
아까시남		농기구 자루의 재료가 되는 나무
아지랭이		여름 풀
오곶농시	오곶농사	
운동고장	인동덩굴	
유름	으름	으름 덩굴의 열매
윤남		도리깨의 재료가 되는 나무
윤남여름		가을에 빨강계 익는, 윤나의 열매
채환지		바람이 따워
조	조	검은조 : 빛이 조금 검고 차진 조

지실	감자	그랑조 : 피와 섞여 짓는 조 모은조 : 끈기 없는 조 개각시리, 동굴시리, 말시리, 무시리, 한개시리
진풀		보리밭에 나는 김 종류
전		모시 비슷한 풀 이름
주룩남		
청장풀	망초	
축벽	축백나무	
칠남	웃나무	
썩가시남	구지뽕나무	
탈	산딸기	보리탈, 개미탈, 배염탈
폭남	팽나무	
폭개	파리	하늘폭개, 보리폭개, 밀폭개
피	피	
뫓	팔	
해바래기	해바라기	
황밧검질(황밧)		
*처서철 검질		처서 시기에 김매기를 시작하면 40일 동안 김매기를 한다고 한다.

### 3. 지명 (뫓, 물, 밭, 동산, 오름, 동네 등)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 고
개나물		
검봉낭굴		
고겨물		
고마니굴		

관전밭 동산  
궁대오름 (궁대악)  
궁댕이왓  
깊몰  
낭것오름  
낭굿  
남뚜리  
내팻동네  
노개이술  
농담무르  
누래기꺼  
누루숯  
대머들  
대왕산  
도리숯  
돛박낭가름  
동산몰  
뒤누린밭  
디고부니오름  
망수르  
모기왓  
모시왓거  
몰팻  
벌라리  
백밭  
비령밭  
부자술  
부즈밭동산  
불술

관에서 관리했던 밭  
활 모양으로 생긴 오름

내(川) 밖의 동네

果池 -- 水山里  
대나무들이 많이 있는 지역

道路池 -- 水山里

질이 나쁜 밭을 일컬어 말함

물이 빨리 말라 버리는 지역



사리숲  
상뒷동산  
새커리  
섯굴왓  
성앞(숲)  
센동산  
소남동산  
소생이굴  
솔대왓동네  
쇠선동산  
수산도  
숙덕밭  
신술(앞)  
손든나무  
양수  
역곽  
웁동산  
유지나무르  
잔숲  
장지동산  
정지남당  
조족동산  
종심당  
진빌레  
진빌레 동네  
짓구물  
즌 숲  
차남(추남)동산  
추남숲  
퀸나물

성 (지금의 수산국교) 앞에 못

골(골짜기) 주위의 밭

큰 숲의 앞 동네

타남숫괴		한못 옆에 있는 굴.
통개나물		
통남숫		
통한숫		
한숫		漢池 -- 水山里
항통		
항무수리		
홀통산		

- \* '-숫'과 '-물' : '-숫'은 고여 있는 물을 일컫고, '-물'은 먹을 수 있었던 물을 일컫는다고 '등산'과 '오름'이 있는데, '오름'이 보다 큰 것이다.
- \* '수산리(水山里)' : 설촌 당시부터 '물외'라 불리었으나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수산리'로 호칭하였다. '인의예지'와 '인산지수'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 \* '화전동(花前洞, 花田洞), 화남동(花南洞)' : 밀립지를 뜻하는 '꽃'의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꽃+앞' 『고잡』이라 했었는데, 이것이 '꽃'으로 와전되어 '花前' '花田' '花南' 등으로 바뀐 것이라 여겨진다.

#### 4. 음식명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 고
감주밥		고구마를 섞어 지은 밥
강정	강정	깨, 콩 따위를 물엿이나 꿀에 버무려 만든 과자
개역	미숫가루	
고적		장사 때 일가에서 부조로 드리는 떡이나 쌀.
과절(과줄)	과줄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한 뒤 과줄판에 박아서 기름에 지진 유밀과
느쟁이 범벅		매밀겨로 만든 범벅

눔빤 짐끼(짐찌)	무김치	
당배치 짐끼		당배치(개량배추)로 만든 김치
대사니 짐끼	마늘장아찌	
돌래 떡		둥글고 납작하게 빚은 떡
둥글락 떡	절병	
둥짐끼	동치미	무를 둥글게 잘라서 만든 김치
드룻마농 짐끼	달래김치	
마농지(마늘지)	마늘장아찌	
멜젯	멸치젯	
모물묵	메밀묵	
물만뒤	매밀 송편	
물짐끼	나박김치	
뭇 범벅		뭇(무릇)에 꽤(해초류), 보리개역(미숫가루)을 섞어서 만든 것
		파초(반치)로 만든 김치로, 최고 반찬으로 치던 음식
반치지		보릿가루로 만든 범벅
		메밀가루로 얇게 부친 전 속에 무, 파등을 넣어서 길쭉하게 말아낸 떡
보리범벅	부추 김치	
빙떡(전기떡)		길쭉한 쌀떡으로 솔잎 위에 놓고 전 떡
	쑥떡	
세우리 짐끼		식은 밥으로 누룩과 함께 바효시킨 여름 음식
솔편(솔뻬)		내모난 약과
속떡		술을 빚기 위해 만드는 떡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는 조떡
선다리		오매기떡으로 만든 술
약과		
오매기떡		
오매기술		
우미	우무(한천)	

제베기	수제비	
절편		등근 꽃판으로 눌러 만든 흰 떡
제편	백설기	
조죽		좁쌀로 만든 죽
중채		좁쌀, 메밀가루로 튀긴 떡
춌범벅		메밀가루에 무를 섞어서 만들
톨반찬		툇(녹미채)을 무친 반찬
톨밥		툇을 섞어 지은 밥
푯나물집끼		푯나물로 만든 집치
파래개역 무침		파래와 미숫가루를 섞어 만들
파래밥		파래를 섞어 지은 밥

### 5. 농기구·가재 도구명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 고
거름채	가는채	
고들개	경거리	
곰박		국자 모양인데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내어서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져내는 데 쓰는 채구
곰배	흙방망이	
꿀갱이	호미	
괘이		땅을 파는 데 쓰는 농구 'ㄱ'자로 생긴 쇠에 긴 자루를 끼움
구덕		큰 바구니
군데		곡식을 넣어 말릴 때 쓰는 널판지로 만든 푼니 모양의 농기구
글묵군데		아궁이에 불씨를 집어 넣거나 재를 건어낼 때 쓰는 기구
ㄱ는 채		구멍이 잔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

그래	땃돌	내는 데 쓰는 기구
그래 명석		이삭이 작은 것을 탈곡하는 데 씀
굴채	삼태기	
나다		도끼와 같이 쓰는 큰 칼
남박	나무쪽박	
남죽		밥 짓개
낫		큰 낫
대바지		물길는데 쓰는 병모양의 허벅
대악새기		솔박보다 작은 바가지
대차롱	채롱	대나무로 만든 채롱
따비		밭을 개간하는 데 쓰는 연장
덩그렁 막개	짚두드리개	
도구리	함지	
도끼	도리깨	길마 밑에 놓는 것
도곰		
도치	도끼	
동고랑(밥당석)		밭을 담는 채롱. 도시락
명석	명석	
메호미		나무를 자르는 낫과 비슷한 것
맥다리	떡서리	짚으로 촘촘히 결어서 만든 곡식을 담는
		그릇
멜망탕이	망태기	어깨에 멜 수 있는 작은 망태기
목광이	곡괭이	
못빼기	노루발장	
	도리	
물막개		빨래 할 때 쓰는 방망이
물박새기	물바가지	
물그래	말 방아	
박새기		나무 바가지

밥당석(동고량) 보리칼 보리흙태 부계 부섭  불순구락 산태  쇠시롱(쇠스럼) 솔박 셋부계 얼맹이 잠대 장박새기 적쇠 질렁 질매 질배 평 푸는 채 허벅 화리	보리흙이  쇠시랑 바가지  어래미 쟁기  길마  병 키  화로	밥을 담은 채롱 보리를 탈곡하는 기계  기름을 짤 때 사용하는 기구 난방장치로써 대청마루에 돌로 된 화로를 심어 불을 피우는 곳 화로에 사용하는 숟가락 긴 잣나무 두 개 사이에 가운데 가로장을 박아 들게된 기구  씨앗을 담아 두는 자루 바닥의 구멍이 큰 채  장을 떠 낼 때 쓰는 바가지 적갈 (고기적) 고기를 굽는 기구 소에 짐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  짐을 지는 짧은 새끼  병 모양의 물동이
--	---	--

## 6. 놀이명

수산 지역 방언	표준어	비 고
고무총	고무총	'Y'자형의 나뭇가지에 고무줄 달아 새를 잡는 행위
굽올락 공기	슴박꼭질	작은 돌맹이들을 땅바닥에 놓고 손으로 집고 받는 놀이
퐁이두기 팽사냥		장기와 비슷한 놀이 농사철이 끝나면 동네 개들을 모아서 함 께 사냥을 했었다고 한다.잡은 팽은 6부로

남차놀이		나뉘는데 날개2, 다리2, 머리1, 가슴1이다.
다가리도리		나무로 자동차 모양을 만든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드름돌		두 편으로 갈라서 하는 놀이
방치기		돌 들기 내기
뽕이치기		땅바닥에 네모판 (집모양)을 그려놓고 돌 뽕이를 차면서 하는 놀이
씨름	씨름	뿔기를 가지고 하는 놀이
연놀리기	연날리기	
오지미		콩, 모래를 담은 주머니를 던지고 잡으면서 하는 놀이
콩웃		콩 따먹기 웃놀이. '도, 개, 걸, 웃, 모'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콩알을 따먹는 놀이
활쏘기	활쏘기	
흔다리인다리		여럿이 다리들을 엇갈려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지목하여 하나씩 다리를 빼는 놀이

7. 기타 (의성어, 의태어, 일상 속담 등)

조 사 한 내 용	설 명
각각	가가비(개구리) 우는 소리
고지각고지각	고지가자리(메미)가 우는 소리
까작까작	독자국의 모양
다불다불	독자국의 모양
동글랑 동글랑 부배영	동그랗게 문질러 빚어서 절편을 접은 모양
뚝박뚝박	만뒤(메밀송편)를 접는 모양
땀 찰찰 허멍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물떼기 굽은 사름	성질이 독한 사람을 일컫는 말
물 죽은 밧디 들언디아	시간에 늦게 돌아오는 사람을 꾸짖는 말
몽쿨몽쿨	동글동글하게 작은 모양
버공버공	버공새(뺨꾸기)가 우는 소리
부름씨	심부름
산디래 절후라	심방말죽을 가지고 놀 때 하는 말
쇠 굽은 새끼야	가르쳐도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는 말
수랑수랑	길쭉길쭉한 모양
스럭스럭하게 물렁	곡식을 바삭하게 말리는 것
숙쇠 닭은 거	심술궂은 사람을 꾸짖는 말
자울락자울락	복시다리(병신말)가 달리는 모양
족발이가 청승에 난다	장애자가 얘기를 잘 낳았을 때 하는 말
찌루룩 찌루룩, 짚루룩 짚루룩	말죽(귀뚜라미)이 우는 소리
쿠실 쿠실	드룻마농(달래)의 모양
투실투실	매끄럽지 않고 오돌토돌한 모양
푹끈다	부채질하다

\* 제보자 명단

김봉선 ( 남, 85세)	한계옥 ( 여, 85세)
강창부 ( 남, 76세)	김태표 ( 남, 64세)
강창익 ( 남, 71세)	오애생 ( 여, 63세)



# 民 謠

指導教授 : 허남춘

指導補助 : 한기홍, 정용문

班 員 : 고윤정(91), 김영혜(92), 고운산(92)  
김보영(92), 강성운(93), 고수현(93)  
한미혜(93).

## I. 조사경위

## II. 제보자

## III. 노동요

가. 밭 불리는 소리

나. 무쉬 모는 소리

다. 출 배는 소리

라. 검질 메는 소리

마. 짚 뜯 사데

바. 뜰질 소리

사. 마당질 소리

아. 방애 소리

자. 해녀 노래

차. 시집살이 노래

## IV. 의식요

가. 상여소리

나. 달구소리

## V. 타령류

가. 서우젯 소리

나. 박연폭포

다. 청춘가

라. 사절가

마. 창부타령

바. 석탄백탄가

## VI. 동요

1. 전승동요

가. 애기 흥그는 노래

나. 꿩 노래

다. 이 땀 때 부르는 노래

라. 말잇기

마. 거미야 거미야

2. 놀이요

가.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나.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다.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라. 말잇기 할 때 부르는 노래

마. 놀리는 노래

3. 개사곡

## I. 조사경위

### 제 1 일 ( 8월 3일 )

8월의 하늘치고는 좀 스산한 느낌을 주는 아침이었다. 학교 본관 앞에서 학교 버스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인 수산리로 출발했다. 차장 밖으로는 곧 비가 내릴 듯이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산에 도착할 무렵에는 한 두 방울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간단한 입소식이 끝난 뒤, 짐을 정리한 우리는 반원이 세 명밖에 오질 않아서 일차적으로 제보자들을 찾아 뵙기로 했다. 제보자들을 찾아 뵙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었다.

일차적인 답사가 끝난 뒤에 학교로 돌아온 우리는 예전의 학보들을 들여다 보며 기록방법이나 어떤 것을 질문해야 하는가 등을 숙지했다. 사전에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졸업 선배 한 분이 찾아 오셔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우선적으로는 민요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기뻐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학술조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모여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한 경과보고나 각자의 느낌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는 반원이지만, 다른 반들보다 몇 배 나은 성과를 보이리라 다짐하며, 어수선했던 하루를 마감했다.

### 제 2 일 ( 8월 4일 )

기상후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10시쯤 부기순 할머니를 찾아 갔으나 계시지 않아 다른 제보자들을 먼저 찾아 뵙기로 했다.

강창부 할아버지를 찾아 갔으나 계시지 않아 옆집에 사시는 강중호 할아버지 덕을 찾아 갔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손녀와 함께 수박을 드시며 우리들을 맞아

주셨다.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 된다는 부담에 어색해 하셨지만 '민요대전' 참가 경력을 말씀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셨다. <태평가>를 시작으로 <뱃 불리는 소리>, <툼질노래>, <출 베는 소리>, <마당질 소리>를 몸 동작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훗소리를 배워 같이 부른 우리들은 저녁에 노인회관에서 다시 뱃기로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백옥생 할머니와 강창부 할아버지를 찾아 갔으나 두 분 모두 안 계셨다. 학교 앞에서 좀 기다리다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일하시다 오셔서 피곤하신지,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셨다. 노래를 해 달라는 부탁에 전설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며 한참을 얘기하신 후에 <해녀노래>, <애기 흥그는 노래> 등을 해 주셨다. 저녁에 회관에 꼭 오시라는 약속을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간단한 음료수와 과일을 준비한 반원들은 노인회관으로 갔다. 다른 반 참가자들과 선배님들, 동네 분들이 많이 모여 자리는 아주 흥겨웠다. 혼자 계실 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께서도 흥에 겨워 서로 노래를 하시려고 하셨고 자리가 끝나갈 쯤에는 제보자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구경만 하시던 분들도 노래를 하시며 즐거워 하셨다.

10시가 넘어서야 자리가 정리되어 학교로 돌아온 반원들은 평가와 부분 정리를 하고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 했다.

### 제 3 일 ( 8월 5일 )

아침을 먹고 동요 채록자 몇 명을 남긴 채 9시 15분 쯤에 강창부 할아버지를 찾아 갔다. 그러나 계시지 않아서 나중에 가기로 하고 강중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 갔다. 나갈 채비를 하시던 할아버지는 우리 부탁에 기꺼이 소리를 해주셨다. <뱃 불리는 소리>, <무쉬 모는 소리> <출 베는 소리> <상여 매는 소리> <검질 베는 소리> 등 중간중간에 농사 풍속과 노래의 내력을 함께 들었다.

다른 제보자들을 찾아 갔으나 계시지 않아 그냥 돌아오던 길에 노인정에 계

신 할아버지 강창부 씨와 고헌수 씨로부터 <검질 메는 소리> <창부타령> 등을 들었다.

강여옥 할머니를 찾아 갔다. 우리를 즐겁게 맞아주시며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다.

점심 식사후에 다시 강여옥 할머니를 찾아 뵈었다.

저녁에 마을 어른들과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제 4 일 ( 8월 6일 )

아침을 맛있게 먹고 그동안 도와 주셨던 제보자들을 찾아뵙고 답례한 후, 학교로 돌아오려는데 백옥생 할머니가 못다한 소리가 있다며 <성주풀이>를 해주셨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학교버스를 타서 수산리를 벗어 났다.

## II. 제보자 명단

[제보자 1]

성산읍 수산리

강 중 호 (74세,男)



동네 어른들로부터 소리를 제일 잘하신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 갔다. 할아버지와 손녀단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손녀도 전학가 버리면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다. 혼자 사시면서 과수원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무척 젊어 보이셨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다.

우리들에게 수박을 권하며 소리를 해 주셨다. 한라문화제 같은 행사에 많이 참가하셨던 분이어서인지 사투리를 별로 많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있고 시원치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노래는 불러주려고 하시지 않았다. 유명한 명성만큼이나 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했다. 한꺼번에 많은 노래를 청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들었다. 상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의외로 술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 2]

성산읍 수산리 (고향 : 평대)  
백 옥 생 (82세, 女)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원래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지 우리가 여쭙보지도 않았는데 이것 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수산에서 가게를 하다 지금은 담배만 팔면서 혼자 사신다고 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찬 모션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데 고맙게 여겨졌다.(발음이 부정확한 것이 안타까웠다.)



[제보자 3]

성산읍 수산리 (고향 : 김녕)  
강 여 옥 (65세, 女)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젊어 보이셨다. 소문대로 소리를 잘 하셨다. 처음 찾아 뵈었을 때는 목이 쉬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날엔 어느정도 풀려서 시원하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 성격도 밝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다른 분들에게 훗소리를 해 주라고 부탁하며 씩씩하게 부르셨다. 제일 처음 노래를 시작하여 분위기를 끌어낸 분이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회관에 참여한 몇몇 할머니의 방해로 소리를 모두 청해 들을 수가 없었다. 자꾸 소리가 끊겨서 계속 부를 수 있게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제보자 4]

성산읍 수산리

홍 임 춘 ( 82세, 女 )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셔서 말을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다. 처음에는 안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시작하니까 같은 노래인데도 나도 해 보겠다고 자꾸 부르실려고 하셨다.

### Ⅲ. 노동요

#### 가. 밭 불리는 소리

사설:야 저 물 돌아오라 오늘 이 밭을 다 불려야 헐건디

어려러러러러어 ----

어려러러러러어--어어 허허월 어허허로로로--

요 물들은 앞쿠쟁 뒤쿠쟁 불바드라 아---이

오늘은 이 밭을 --- 다 불려사 헐로구나----이

어려러어어--- 오호 ----오호오월

남쪽하늘에-엔 흰구름이 몽클몽클 솟아온다 예헤--

내일도 날은 좋(을)로구나 어러러러-- 어허허 오호 어월월

요네들으 -ㄴ 이말 오늘 무력 잘 막아그네

요 बात 다 불령 끝만나민 집이 가그네  
 어멍그라 곶앙으네 술네기국 끄령주렌허마.  
 어허허어 어러러러---  
 삼복더위는-- 팡팡하고---- (첼첼첼)  
 가슴에 방울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구나  
 이히리아----이히리리리 헤  
 오늘으--니 몰아머리칠 속암구나 헤이여  
 (저물영) 죽은 놈 풀질해주마  
 어허러--- 오호--- 러워  
 초블은 다 설허놓앗구나  
 저기 아진 성님그라 씨를 뿌려줍써---  
 우리는 갑을라쿠다 어허  
 저노라  
 하 요몰들으--니 앞서곡 뒷서곡 잘도 밟아주나  
 그만허민 다 불버져 가는구나 (어러러러--)  
 어헐월---- 야 죽은 놈아 बात 다 불려졌져 돌 막아 내몰라.  
 (제보자 : 강중호)

#### 나. 무쉬 모는 소리

향어어----러어 ---- 오호호호----- 어허---호 오로로로.  
 요놈의 소들은 이쪽 저쪽 가지말고 고작허게 올라글라  
 에헤어호호---- 어호호호  
 (제보자 : 강중호)

#### 다.-1 출베는 소리

허기야 어허어---요 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출이로구나 이히여야  
 오늘도---비가 아니 오라사 요출을 다 빌로구나이 예이예이예에헤예야

날도 좋은-- 오늘은 납덩도 많이 온때에 많아 비여그네  
 많이 거두어야 될로구나 오히려 기야 디야  
 산지--조중은 골륜산이야  
 수지 주중은 황하순데  
 우리 출은 평야 야초에 매달렸구나마는  
 우리들 삶이 (의존)이로구나 히야  
 (채보자 : 강중호)

다-2 출베는 소리

여기야 디야 헤이에-----  
 오늘 날은 좋을로구나  
 요출은 --- 다 비어사 주인헌티 고마운 말이라도 들으켄  
 여기야 디야 헤에---  
 어글락 저글락 들은 무사 경 맥험심팡 아이고  
 출도--- 하늘 높은 중 모르고---  
 아진디 아자그네 빔도 패그락 지는구나 여기야 디야 여기영--  
 우리 적군덜 힘이나 내영---- 저녁덜 새에 일을 다 무칠걸로 맹심허라----

(채보자 : 강중호)

라-1 검질매는 소리

어허야 두우후야 사테로구나	아하야아하야 에히야 에헤요
사테--물 불렁 검질을 메자.	”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
얼기 좋은 오늘이로다	”
흐 줌 두 줌 검질을 메난	”



켈켈 나는 별에 잘도 죽엄쳐 "
   
 적군님들 수고가 많구나 "
   
 죽은 년들 집이덜 가그네 "
   
 간식이라도 가져당 드리라 "
   
 요번--- 명에는 저집이 멀고나 "
   
 반찬 출렁 점심 준비도 허라 "
   
 성님 성님 스춘 형님 "
   
 이그녘으로 안자그네 횡횡케 돕써 "
   
 아시들랑 생뉘을 메라 "
   
 좋은 날에 간간이 메난 "
   
 허는 일이 성애가 되는구나 "

(제보자 : 강중호)

라-2 검질매는 소리

검질 짓고 풀 너른 밧디 아-----아하양 에야---에여
   
 앞명에야 들어나 나오라 "
   
 혼소리에랑 혼쫘 반씩 "
   
 두소리에랑 두쫘 반씩 "

마. 쭈른 사데

어허야 황하로구나 사대불령 우경을 가게
   
 에헤야 디화로구나 검질짓고 풀너른 밧디
   
 " 풀근곡장 내소아메자
   
 " 동산밧디 검질매은
   
 " 착한 일을 헤여쨌헌다.
   
 " 굴렁밧디 검질매은
   
 " 간세부텨 일해쨌헌다.

" 적근님네 열심히영  
 " 이김질을 메어나주  
 " 산에가난 (살장고수)  
 " 눈에가난 (섬의전수)  
 " 비에 쟁쟁 열내웁서라  
 " 앞망에랑 드러나오라  
 " 뒷망에랑 나고나가라  
 " 앞밭로랑 해업쳐가고  
 " 뒷밭로랑 내소아가라  
 " 가름메드난 전고래소리  
 " 지비 오난 애기움소리  
 " 사대불렁 우경을 가게  
 " 허당팔민 늬이나 근나  
 " 혼저 박박 고들깨메어  
 " 저녁이나 붉은 때 허라  
 " 어허야 방화로구나  
 " 방화질어 물질을테니  
 " 사년 못살 제사만서나  
 " 가는님을 잡지나마라

(재보자 : 강여옥)

바. 톱질 소리

이야-- 하야 헤어로 하야	이야---하야 헤어로 하야
요 톱질 헤어 보젠	"
천년 묵은 보민 톱으로	"
칠십 ( ) 당헌 김에	"
요 나무를 오려 보자	"
스르릉 스르릉 땡겨줍써	"

요 톱질을 오늘 종일	"
힘이 들었 버칠 망정	"
다 오려사 헐로구나	"
(                    )	"
금이 있어 금으로 주나	"
옥이 있어 옥으로 주나	"
금생여수 아니어든	"
금이 어디 잇으오며	"
옥출곤강 아니어든	"
옥이 어데 잇으리까	"
오늘 종일 요 낭 캐영	"
저녁 때랑 맛이 좋은	"
(음식이름)도 맥여 주키여	"
야---낭 다 오렷찌	"

(제보자 : 강중호)

사. 마당질 소리

이야홍 이야홍	어기야 하야 어기야 하야
오늘날은 요마당질	허영 어기야 흥 어어요 하야
유월 영창 뚝은 날제	이야홍 어이요 하야
요 별인 마당질 해여그네	이야홍 어이요 하야
우는 애기 놓아두고	"
뱅든 낭군 눅져놓고	어이야홍 어야홍
요땅 지붕 요 마당질 해영	이야홍 에이야 흥
죽은 년아 재기 출렁	어이야홍 에이요 허야
오늘날은 저녁이나	어이야홍 어야홍
붉을 때 해영 먹어볼게	"
본디 저녁 어득은 집이	"

오늘이 붉으리야

어이야흥 어야도 하야

( 제보자 : 강중호 )

아.방애소리

이여 이여 이어동 허라 이아방에 고들게지영  
 저녁이나 붉은 때 허게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놈의 고대 애기랑 배영 허리지당 내지랑 마랑  
 고봇 고봇 지어나 보게 음-----음-----  
 이여 이여 이어동 허라  
 모살 방둥 김치 두망 없는 부모 기다려 보라  
 이어동 허라 이어동 허라  
 절고 밧되 도술낭 신경 쓰나 두냐 맛불이서도  
 친정살이 혼 없더라 이어동 허라 이어동 허라  
 이언 방에 말아라 해영 대로 한질로 놀래나 가라  
 이여 이여 이어동 허라 음-----음-----

(제보자 : 백옥생)

자. 해녀노래

이여사 이여도사나 이여도 사나  
 요내 상처 꺾어나지면  
 한라산에 천년 묵은 고목나무 없어서나 이여사나  
 요내 밴주리 끊어지면 어선노이 없을소나 이여도사나 이여도 사나  
 요내 흘뭇물 꺾어지면 (도렛병아) " " "  
 요 몸통이엘 뿔을 먹고 술젓느냐  
 얼음통을 먹었더냐 솜통을 먹었더냐  
 등실 등실 올라나오네 이여도 사나  
 선두산고 뱃머리만 발래줍써

짓거리는 우리대로 짓어나보자  
 저어라 비켜 저어라 저어라  
 휘기여 져어 휘기여러어--- 휘기여어---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점심 굶으멍 물질허영  
 혼푼 두푼 모은 금전 정든 님 술값에 다들어가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산지추항 배질헐 때는 소심 등대만 반짝반짝  
 선장놈이 손을 대더니 빈 고동소리가 절로난다  
 성산포야 잘 있거라 오고보니 삼년이라  
 (제보자 : 강여옥)

차-1 시집살이 노래

시아방은 나를 보면    아아하양 에헤야 에헤요  
 구쟁기 녀시 새들각헌다    "  
 시어멍은 나를 보면    "  
 암채신 녀이 코지직헌다    "  
 씨누이는 나를 보면    "  
 코생이 녀시 흐투룩 헌다    "  
 서방님은 나를 보면    "  
 물구럭녀이 언제언제헌다    "  
 지애집도 열다섯채에    "  
 초가집도 원다섯채에    "  
 집을 구경 내오라더나    "  
 밧을 구경 내오라더나  
 전치전치 나전치더라  
 성님성님 스춘 형님  
 시집살이 어떻헉디가  
 아이고야 말도나마라

고추당초 매웁덴해도  
 시집살이가 더 매웁더라  
 한라산으로 누리는 물은  
 오방암석 다 식인 물이여  
 이내 눈으로 흘리는 눈물은  
 일천간장 다 식인 물이로다  
 식이당 식이당 남은 물은  
 대천바당에 호터나노카

(제보자 : 강여옥)

#### 차-2 시집살이 노래

성님 성님 스승 성님 시집살이 어뭇데가  
 끈두 말구 이르두 말라 고추 장추 뱀덴해도  
 그 보다도 더 뱀더라 나 어뭇은 기드는 애기  
 늙은 주난 종으로 나 어뭇은 저 산 꺾시민  
 설운 애기 소린 덜 허컬 산덴 허나 못 산덴 허나 붉은 양지

(제보자 : 강여옥)

### IV. 의식요

#### 가. 상여소리

(어허낭창 어허노새)	노새놀아 짊어놀아	(어허낭창 어허노새)
가자 가자 어서가자	어허낭창 어허노새	천년만년 살을 집에 "
고이 고이 모셔보자	"	일가방상 동네어른들 "
수고하고 피로움을	"	인생한번 죽어지난 "
요런 광경 되었도다	"	가자 가자 어서가자 "
갈길이야 천리로다	"	우리들이 산다허니 "

막상막 살아도 단 팔십이여	"	부모님들 돌아가면	"
설움이나 한이없네	"	우리들도 늙어지면	"
요런 모양이 될로구나	"	일기도 좋고 좋은 날에	"
만년 살집으로 모셔보자			

(제보자 : 강중호)

나. 달구소리

어허랑 달구	어허랑 달구
어허랑 멀구	어허랑 멀구
먼딕 사름 듣기 좋게	어허랑 달구
옆의 사름 보기 좋게	"
해뚝딱 해뚝딱 말아그네	"
일사에 놓고 일시에 들자	"
노피 돌엉 늦이 놓키여	"
(황경무디)를 꾸불려 가명	"
일시들고 일시에 놓자	"
우리 적군 근실허다	"
그만허면 혈만허네	"
어허 달구로다	어허 달구로다

( 선소리:강중호, 홑소리:백옥생, 강여옥, 홍임춘)

V.타령

가. 서우젯소리

동기와 담은 청룡머리		
서기와 담은 백룡머리	아-----아야	에---양 예요

남기와 담에 황룡머리  
 북기와 담에 흑룡머리 "

흔 허구리엔 천왕추지  
 흔 허구리는 지왕추지 "

물이 싸면 강변에 놓고  
 물이 들면 수중에 논다 아-----아야 에--양 예요

물 아래는 용신이 놓고  
 물 우의는 선왕이 노네 "

7물이라 고사공아  
 이물이라 이사공아 아-----아야 에--양 에--예요

뱃되밧에 화전하영  
 물때 점점 늦어지네 "

어여차 소리에 뚝뚝겨 매여놓고 "

뒤여차 소리에 닳땅겨 놓아놓고 "

바람 좋고 물때 좋은 때 ( ) "

땅만 불은 쇠태를 쓰고 목만 불은 헌질목에 "

진민 부튼 헌 도푼에 땅만 부튼 헌짚신에 "

아뚝허면 천리를 가고 아뚝허면 만리를 가네 "

산지주중은 곤룡산에 임의 주중은 황하수라

경기도라 설악산아 강원도라 금강산아 "

충청도라 계룡산아 목포에라 유달산아 "

제주면 한라산아 장무릿 할무니 으라서라

나. 박연폭포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범사야정으로  
 연실 감돌아든다 에헤 어허야 얼싸안고 줌도 좋다 얼라디 둥둥 내사련가  
 가는 님 허리를 뒤로 담썩 안고 가지를 말라하고 정사련가

(제보자 : 강길호)



다-1 청춘가

고가참변 일윤홍운 불상이나 홍실 높이 떠서  
양공이 젖은 안개 월복으로만 돌아돌고  
청춘을 개갈짓고 불륜봉 구름이 노피 떴다  
어룡은 잠을 자고 철새는 날아든다  
동정여천이 팔십수요 금수초파가 이아니나  
앞발로 백발을 집어당기며 뒷발로 장가를 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양금 당신을 뛰어들제  
백마는 가자 굽을 찾고 입은 날 잡고 아니 놓네  
얼씨구나 좋다.절씨구나 아니나 놀고서 무얼하라

다-2 청춘가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 히롱마라  
언제 늙어 백발이 아니고 소년늙어서 백발이로다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꽃고치 고운님이랑 열매같이나 뭉쳐놓고  
가지가지 벌은 벌은정이랑 뿌리같이나 깊이두소  
얼씨구 얼씨구 정말 좋구나 아니노지도 못하리라

산을 두고 명산을 둔 이 입을 두고  
강구강남을 강구대 놓고 남은 이 시절이 웬말이나  
얼씨구 얼씨구 정말 좋구나 아니노지도 못하리라

( 제보자 : 고매옥 )

다-3 청춘가

에헤 에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신구 명산 만경봉이 바람분다고 쓰러지나  
송죽고튼 곧은 몸이 큰 뉘를 논다고 허락하나  
몸은 비록 (가루일)망정 절개조차도 기성이나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 장단에 춤이 나네  
정월에 뜨는 저달은 새희망을 주는 달  
이월에 뜨는 저달은 동동주를 마시는 달  
삼월에 뜨는 저달은 처녀가슴을 태우는 달  
(제보자 : 강여옥)

#### 라 사절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 연풍년이 나오랴네  
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좋아  
맹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갈거나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마다 연풍년이 오랴네  
일씨구 좋다 지화자 좋고 좋아  
맹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나 갈거나  
(제보자 : 백옥생)

#### 마-1 창부타령

에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신구 명산 만경봉이 바람분다고 쓰러지나  
송죽고튼 곧은 몸이 큰 뉘를 논다고 허락하나  
몸은 비록 가루가 뭇망정 절개조차 지성이나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 장단에 놀아보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만경창파에 배 띄워라  
인자가면 언제나와요 오는날만 일러주소  
모란봉이 변하여서 대동강수가 될지라도  
너와나와 두 사람은 변치를 말자 굳은 언약  
( 날리리 날리리 -----)

석탄 백탄 타는 줄이야 삼천만 백성이 알주마는  
요네 심점 타는 줄이야 어느 장부가 알아주라  
( 날리리 날리리-----)

( 제보자 : 강여옥 )

마-2 창부타령

얼씨구 얼씨구나 아니 아니는 못노리라  
요때는 어느때뇨 화란 춘성 만화방창  
때는 좋다 벗님네여 산천경계를 구경가자  
죽장 짚고 낭파 나절로 천리 강산을 들어가니  
만산홍록은 울긋불긋 일년에 한번씩 피건마는  
춘색을 (            ) 백백은 붉었는데  
장송제전 노불장상  
기화야 초란 만즉례 꽃복에다 나부 (     ) 날아든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아니는 못노리라  
(제보자 : 강길호)

바. 석탄백탄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는 고불속 나고요  
요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병도 안난다  
에해야 에해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사령사령 이로다  
천지물은 흘러서 수령의 경기만 되고요  
니물 내물 흘러서 백의 동자가 되는다

에헤야 에헤요 어여라 난다 디여라 사령사령 이로다  
(제보자 : 강길호)

## VI. 동요

### 1. 전승동요

#### 가-1 애기 흥그는 노래

우리 애기 자는 소리	우는 아이 우는 아이
어서 자라 어서 자라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심동아	어서자라 어서자라
일러방상 화목동아	어서자라 자랑허라
자는 것은 잠소리여	우는 것은 울소리여
어서어서 자랑허저	우리 애 아니자면
지픈 지픈 천지소애	드르춧다 내춧다 헐로고나
웁이 자랑 뽀이 자랑	어서자랑 자랑허저
일러방상 화목동아	일러방상 화목동아
어서자랑 어서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눔의 애기 늑소리여	웁이자랑 뽀이자랑

(제보자 : 백옥생)

#### 가-2 애기 흥그는 노래

웁이자랑 고만자랑	우리애기 자는 소리
눔의 애기 우는 소리	우리 애기 금자동아 옥자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동네 일가 임친댕이
어서자라 쇠모치도 버친애기	
어서자라 요기잔다 버친애기	

어서자라 어서자라 어서자라  
동성에도 서당댕이 어서자라  
부모조상 효심댕이 어서자라

(제보자 : 홍임춘)

### 가-3. 애기 흥그는 노래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자랑자랑  
우리 애기 자는 소리 줍소리여 글소리여  
웁이 자랑 원님 온다 그만자라 어서자라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자랑자랑  
부모조상 시름댕이 부모에랑 효자동아 어서자라  
나라에 충성동이 어서자라 일가방상 화목댕이 어서자라 그만자라  
동네방상 인심댕이 어서자라 웁이 자랑 웁이 자랑  
눈개줍도 재운 소리 물머시다 개운소리  
사기전답 재운 소리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늙의 애기 누는 소리  
글소리여 줍소리여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절로 오는 검퐁개야 일로 오는 옥동개야  
우리 애기 재와드라 아니 재와주민  
니에미영 니애비영 총총배로 걸려다가  
지픈지픈 천지소에 드리쳤다 내쳤다허당  
앞뻗더래 들러내께 불민 앞집 고냉이 오랑 트더먹어분다

(제보자 : 강여옥)

### 나 꿩노래

꿩꿩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았나 내가 내가 몬살리아  
가당 가당 청태콩 혼방을 봉가 먹당 봉알 맞앙 죽엇더라

우리 낭군 살때 보간 재비 돌리고 께에 께에 푸드등 해가민  
 사나이들 그트드라마는 까마귀라 현놈은 오십 나영 살아보게  
 난 만걸 까마귀 꺼명현 것광 난 안 살키여 계난 까마권  
 '각' 허멍 '말진 말라' 놀아나브난 그 다음엔 물올랭이가 오라그네  
 뽕뽕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앗수 내가 내가 몬살리야  
 가당 가당 청태콩 혼방울 봉가 먹당 봉알 맞앙 죽엇더라  
 우리 낭군 살때 보간 재비 돌리고 께에 께에 푸드등 해가민  
 사나이들 그트드라마는 우리 낭군 모양만은 못 허드라마는 혼디  
 살아 보카 계진 나 오는 디로 오라 올랭이랑 그치 고뜰고뜰  
 놀아가서 물올랭이는 강물에강 피아장 둥글둥글 트니까 그  
 옆에강 록 아지니까 올랭이는 텃지만 뽕터럭 젓영 오뽕 죽어부러터  
 (제보자 : 강여옥)

다 이 뻐 때 부르는 노래

까치야 까치야 (참새야 참새야) 현 니는 돌아가고 새 니는 돌아오라

라.말잇기

아야 배여 무신 배니 자라배여 무신 자라 업 자라 무신업 똣 업 무신 똣  
 산 똣 무신 산 콧산 무신 콧 쇠콧 무신 쇠 하늘 쇠 무신 하늘 청하늘  
 무신 청 대청 무신 대 수리대 무신 수리 뽕 수리 무신 콩 장콩 심돌  
 좃다리 검은 콩장

(제보자 : 강여옥)

마. 거미야 거미야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기 하나 동동  
 새거미야 네줄 내줄 걸렸거라

아진 개 조진 개 도막 전 동전 개  
수끄리 당커래 천지 당크네  
수마니 동그시 재격이라

(제보자 : 강여옥)

## 2. 놀이요

가. 고무줄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① 장난감 기차가 칠푹 달려간다.

과자와 설탕을 신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② 가달이 찢어진다 올라가지 말아라

앞에는 곡식들이 널려져 있고

가달이는 조각조각 가달이 빵구 빵

③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 어디어디어디 가왔나

딸랑 딸랑 딸랑 바둑이는 엄마 따라 가왔지

④ 인절미가 시집을 갈적에는

콩가루와 떡가루로 화장을 하고

간다 간다 간다 어디로 가나 들어갑니다 입속으로

(빨간 접시에 누웠었다가 들어갑니다 입속으로)

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다 걸고 나아가자 나아가자 빨간 마후라

아카시아 꽃향기를 잊지 말아라

번개처럼 씩씩한 빨간 마후라

검은 마후라는 연탄의 사나이 연탄의 사나이는 검은 마후라  
검은 마후라를 목에다 걸고 나아가자 나아가자 검은 마후라  
아카시아 꽃향기를 잊지 말아라 번개처럼 씩씩한 검은 마후라

⑥ 사랑하는 아줌마 뽕뽕 구두 사주세요  
뽕뽕구두 필요없다 고무신이나 신어라

⑦ 두부사세요 두부사세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⑧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택에  
고추먹고 먹고 팽팽 달래먹고 먹고 팽팽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방망이로 두들기면 무엇이 나올까  
금나와라와라 똑딱 온나와라와라 똑딱

⑨ 월남 마차 타고가는 캔디 아가씨

나 줄넘기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①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있거라 잘 가거라

② 고남이 고남이 가시나 이바람 마바사  
이일은 이 가시나무에 꽃가루 가루 뿌립니다.



다.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 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꿀밤을 맞았드래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1983년도
  
- ② 빈대 빈대 빈대뽕 가나다라마바사  
우리 우리 우리는 주먹뽕 가위뽕 바닥뽕  
구리구리 가위 바위 보
  
- ③ 캔터키 프랑크 쏸쏸해요 빠밤
  
- ④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친구하러 왔어요  
사랑을 심어주고 자라요 꿈을 키워요  
베비라가 만든 아동복 미니 미니 미니 미니
  
- ⑤ 감자에서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쎄야 하나뽕기

라 말잇기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 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강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짜다 짠 것은 소금

소금은 희다 흰 것은 토끼  
 토끼는 편다 뛰는 것은 공  
 공 둥글다 둥근 것은 지구

② 일일 일본놈은 ( ) 이이 이세상에 태어나  
 삼삼 삼팔선을 넘어서 사사 사람들을 죽이고  
 오오 오락실에 들어가 욱욕 욱개장을 들어서  
 칠칠 칠층에서 떨어져 팔팔 팔다리가 부러져  
 구구 구급차에 실려서 십십 십초만에 폐포닥

마. 놀리는 노래

① (사람이름) 놀자 대머리 깎으자  
 부처님이 깎아 주신대 돈받고

② 하늘에서 ( )가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똥차에 부딪쳤어요  
 신경통 타박상 뇌진탕

3. 개사곡

① 햇볕은 쟁쟁 모래알은 반짝  
 할아버지 대머리에 참기름을 발랐더니  
 푸리 새끼 날아와서 미끄럼타다 빠졌다.

② 오늘은 (어느날) 수박밭에 주인있나 살펴보고  
 없으면 하나술쩍 있으면 삼십육계  
 만약에 들키며는 이빨두개 출장가고  
 아굴타이 왔다 갔다 번개불이 번쩍번쩍

③ 월남전쟁 처음타는 기차안에서  
 앞에 앉은 마귀할멈 빵구를 끼니  
 뒤에 앉은 짱구박사 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70년대 원자 폭탄이래  
 빵구에 중독되어 병원에 가니  
 호박같은 간호원이 배를 만지네  
 으하하하 으하하하 징그러워라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않으리

월남전차 처음타는 기차놀이에  
 차표시간 다되가니 똥이 매려워  
 똥을 싸고 나와보니 기차 떠났네  
 팬티 잡고 뛰는 것도 유행이라네

\* 기 타

①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 " " "

②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 세수한다 멧쟁이  
 " 밥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③ 우리 집에 왜왔니 왜왔니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사람이름) 꽃을 사겠다 사겠다 사겠다

- ④ 옛날에 옛날에 개똥개  
 니네 오빠 어디가서 뒷동산에 똥싸러 가져  
 니네 오빠 오거들랑 국도 밭도 주지말라 덩동댕
- ⑤ 개똥아 (개똥아) 밥먹어라 김치 땡가리가 맛좋다
- ⑥ 자기 소개 합시다 아싸 대롱 대롱 아싸 대롱 대롱  
 아싸 귀싸대기 아싸 대머리 흘랑 아싸 똥피
- ⑦ 별들이 노래소리 샤르르 지나  
 구수하게 샤르르 달콤하게 샤르르  
 왜 이렇게 나도 몰라 정말 몰라  
 너때문이야 지나 지나곤
- ⑧ 우리는 대한의 아들딸 세종심을 기르자  
 모여라 동무들아 함께 함께 나가자.

# 說 話

指導教授 : 김 병 택

指導補助 : 현 승 환

班 員 : 강희숙(3), 김영주(3), 이경희(3)

김재현(2), 부상용(2), 하정숙(2)

김선희(1), 이세연(1), 임경숙(1)

좌혜정(1),

1. 이전물 전설
2. 부부석 이야기
3. 등경돌 이야기
4. 힘센 각시 이야기
5. 지관 이야기

#.이번 조사는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 되었다. 조사 첫날 우연하게 들른 할아버지 댁에서 수산리의 거의 모든 설화를 채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제보자의 얘기도 들어 보았으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강창익 할아버지만을 제보자로 결정하기로 했음을 설명하는 바이다. 여느 때와 같이 덤

기는 했지만 특히 일학년들의 적극적인 조사 태도가 반원 모두의 활력소가 되었다.

## 1.이전물 전설

수산 2리에는 <이전물>이라는 생수가 있었는데 伊씨의 마누라 田씨는 너무나 빼어난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루는 물을 길러 田씨가 이 물에 왔다가 우물에 비친 자기 인물이 너무도 예뻐서 깊숙이 고개를 늘어뜨리고 자신의 미모에 반해서 바라보다가 실족 익사해 버렸다. 이에 伊씨는 이 우물을 메워 버리고 이 마을을 떠나 버렸다는 것이다.

一說에 의하면 田씨가 우물 속에 빠져 죽자 마을에 흉사가 자주 일어나자 이 마을 地官이 <거옥대>를 동쪽에 세우고 폭나무를 부인 옆에 심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당(유지남 마루)>을 말들어 제를 지내고 있다.

<濟州의 鄉史> 濟南 1979.9.17.

### <제보자1>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 1리

강창익(男.71)

## 2.부부석 이야기

부부석은 여기서 저 성읍쪽으로 가는 저 우<sup>1)</sup>에 고지압(꽃압)이런 현디<sup>2)</sup>가 이서.

<조사자:수산 옛날 이름이런 헛디다 예?>

응, 수산 2리주

옛날, 수산 2리 같은디는 돌도 없고 아무것도 어성<sup>3)</sup> 막 병지였거든. 알아들

---

1) 위 2) 한 데 3) 없어서

엄서? 병지가 뭐냐. 벌판, 평지라.

땅도 쌓이지 아니하고덜 다 경허니까 저 돌(부부석)이 저 위로 등그러 오라서 저 산에서 등그러 올라가지고. 하나인 저 궁데오름이란 데가 있지? 궁데오름 물골에 이서. 또 하나인 쇠성동산이랜 현디 이서.

그 돌이 올었다고 허여. 하르방 할망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 산에서 이렇게 붙었다가 내에 떠오를 때에 갈라졌다 말이여.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각시가 앞에 오랐는지 서방이 앞에 오랐는지 모르주마는... (웃음)

하나 앞에 오고 뒤에 있었다가 내가 적으면 막 오지 못할꺼 아니라게? 경행 4) 그 다음에 또로 내가 막혔다가 큰 내가 오니까 인자 요디 있는 수산 안내 막 들어와 가지고 암매란 데가 이서. 암매란 물질이주게. 거기 두 개가 이제 합쳐가지고 등그러 오니까 그 때 당시 어른들이 아마 올명 두 개가 합쳐정5) 오니까 부부석, 즉 부부란 두 가시란 말이거든. 그렇게 일름6)을 지었던 모양이라.

경현디7) 아따8) 놓은 수산 마을이 우알9) 동네 편벽이 이서났주. 저긴(수산2리) 웃동네고 여기는 알동네지. 그 당시 우알 동네가 도륙10)가지고 돌을 거기 가느냐, 여기 가느냐 막 싸왕 그 웃동네가 이경11) 갖다 놓았주.

<조사자:웃동네 사람들이 좀 힘이 썩난 모양이다 예?>

응, 그렇게 했다고 어른들이 전설에 끄는12) 거지.

### 3.동경돌 이야기

여기 보른13) 우리 질14)로 두 질 이상 큰 돌이 이서. 외돌피 닳은 돌이주. 돌 위에다가 큰 낭15)을 턱하니 똥16) 고정되어서. 그것도 옛날이라. 물맹지 - 설맹지 할망이 한라산을 그렇게 세워 났다고 허고 그 돌을 둘러 났다고 허는 옛말이 이서.

---

4) 그래서 5) 합쳐져서 6) 이름 7) 그런데 8) 갖다 9) 위 아래 10) 다뤄  
11) 이겨서 12) 말하는 13) 면 14)길 15) 나무 16) 놓아 17) 남편하고  
18) 가져서 19) 던져

#### 4. 힘센 각시

각시는 힘이 세고 남자는 힘이 세지 안 허고 헨디 남편광<sup>17)</sup> 싸우다가 각시가 남편을 아상<sup>18)</sup> 지붕으로 혹 데껴<sup>19)</sup> 부렀거든. 그 때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때 남편이 쑥수러우난 “큰 호박을 타카, 작은 호박을 타카”했주.

#### 5.지관 이야기

옛날에는 걸영덩기니까<sup>20)</sup> 제주 시내를 가려면 하루가 걸려야 가지.

시장은 허고 가당 보니까 원이랜 헨디 넘어가는데 조천 근방인 모양이라. 그런데 시장허영 혼 받디 들어강 보난 조그만한 옛날 주막에서 사름은 죽어가지고 안에 있고 상제 하나 있고 사름은 혼 두어이 이서 가지고 보난 밥을 얻어 먹으려니 피를 써야 겠다고 해서 “여기 무슨 장이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레가지고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밥은 주고 그걸 먹어서 있다가 뒷날에는 먹은 것도 고맙고 해서 “터나 한번 봅시다. 널리 혼받디 <sup>21)</sup>정해땡 가쿠다.<sup>22)</sup>” 했다.

나가서 아무리 보아도 상제 마음에 안들었어. 나중에 우리 밭에 좋은디 이시난<sup>23)</sup> 가서 보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사람 문을 디가 아니라서. 경해도 거기 강 묻으랜만 허는거라. 경만 해달라고 허명<sup>24)</sup> 제나 좀 해달라고 해서 들이가 제를 해져두고 한 일년 만에 넘어가당 보난 잘 살았거든.

잘 살아가지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그 터가 ‘왕호지지’여. 상제 온도가 워낙 좋으니까 모셔두고 육지 장사를 나갔는데 되돌아와 가지고 여기 와서 상제 간 집이 선물 인정 하시니까 선생은 내가 알고 보니 장난이 아니니까 ...

그 역사는 아주 오래갔주.

---

20) 걸어서 다니니까 21) 한 군대 22) 가겠습니다 23) 있으니까 24) 하면서



# 信 仰

指導教授 : 허춘

指導補助 : 문무병 김윤건

班 員 : 윤경순(3) 함미영(3) 김미영(3)

유미연(2) 고인준(2) 강우생(1)

조정숙(1) 이현정(1) 이지명(1)

- I. 概觀
- II. 公認宗教
- III. 部落信仰
- IV. 巫俗信仰
- V. 個人信仰

## I. 概觀

이 보고서는 199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에  
서 마을의 신앙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다.

수산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다. 이 곳은 남제주군 성산읍 14개 행정리  
중의 하나로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동회선으로 45.5km쯤 가면 고성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2.5km거리에 다소 경사진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산간부락이라기보다 중산간 부락으로 분류된다. 우리 조사팀은 공인종교, 부락신앙, 무속신앙, 개인신앙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대부분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지도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나쳐서 기쁘다. 미비한 자료이지만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I. 公認宗教

수산리의 공인종교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있었다. 그리고 수산 2리에는 수운교도 있었지만, 여러 형편상 조사하지 못했다. 이 곳은 무속신앙이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기독교와 불교의 신도수는 많지 않았다.

### 가) 기독교

한국 총공회 예수교 장로회 '남제주교회'이다. 한국 총공회는 부산 서부교회 교신대학의 한 갈래이다. 이것 외에도 조천 북제주교회도 같은 교단이고, 근소교단에 속한다. 이 교회가 생긴지 7년이 되었는데 부산 서부교회를 다녔던 김성도 전도사가 창설하였다. 이 전도사는 원래 수산리 출신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무속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1년 반동안 헛간에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짓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도사는 이강목 전도사이다. 제적 50명 중에 출석은 35명 안팎이다. 이 교회는 수산 사람뿐만 아니라 종달, 동남에서도 다닌다. 원래 수산인(토박이)은 1명이고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중,고등학생은 6-7명이다. 올해 11-12월 사이에 선교원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 나) 불교

대한불교 원효종 보석사이다. 원효종은 범홍스님에 의해서 40년대에 생긴 것이다. 제주도에는 20여개의 원효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가 적다. 이 절은 70년도에 창설되고, 창건 스님이 개인적으로 원효종을 모시다가 스님이 죽자 이

곳 보살이 맡아서 새로 신축한 사찰이다.

그러나 관동록은 되어 있다. 현재 주지 스님은 없고 보살이 절을 맡아 보고 있다. 사십구제 때는 타종파의 스님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루고 나머지 행사때는 보살이 주관한다. 신도는 150세대이다. 수산인은 70세대이고 다른 지역 즉, 하도, 동남, 시흥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 Ⅲ. 部落信仰

수산리 포제는 전에는 정월과 7월 1년에 두 번 지냈으나 지금은 정월에만 지낸다. 구정월 대보름 안으로 향회를 열어 제일과 제관과 예산 등을 정한다. 보통 3일 전에 향회를 연다. 제관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포제단은 대왕산 남쪽 동산에 있는데, 잡석으로 둘러 신성을 만들고 그 안에 역시 돌로 제단을 쌓고 아래쪽에는 제관들의 의막 돌담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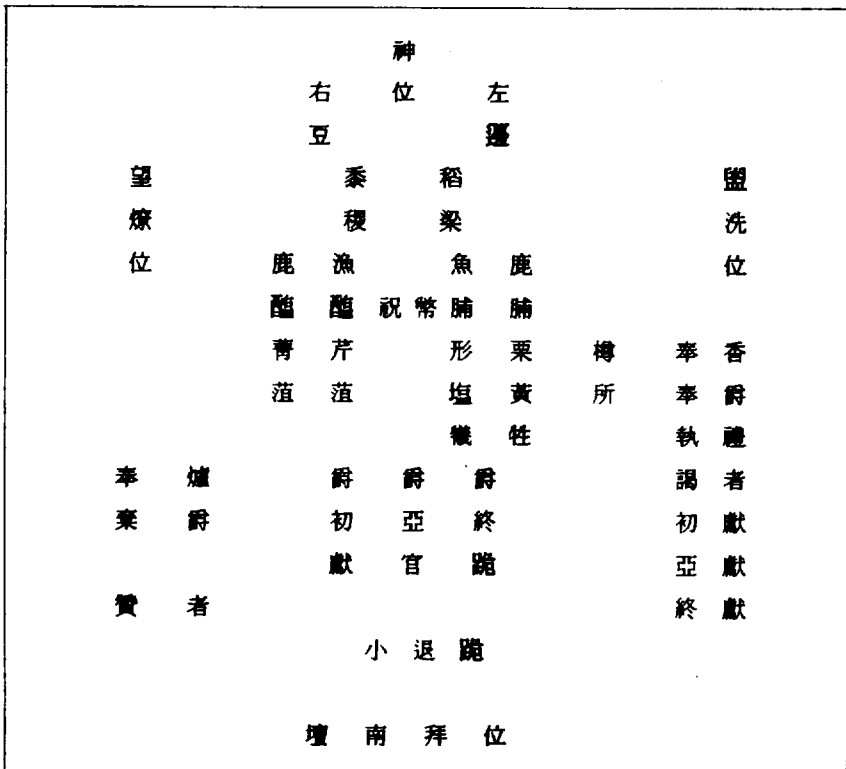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입제하는 날부터 포제단에 금줄을 친다. 이것은 제청에서 제관들이 만들고 마을 입구가 아니라 제청위에 매는데 몸이 상한 사람은 금줄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마을의 어떤 이의 집에 상이 나면 포제는 연기된다. 제일은 역시 정일 아니면 해일인데, 제비는 호당 600원 정도라고 한다. 이 마을의 포제의 진실과 흥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00년 0월 00일 酬祭笏記

謁者引獻 官以下俱 就門外位. 謁者引祝 及諸執事 八就壇南 拜位四拜. 祝以下皆 四拜平身. 詣盥洗位 北向立盥 悅各就位 謁者引獻 官八就位 謁者進獻 官之左白 有事謹俱 請行四拜 獻官皆 四拜平身 行尊幣禮 謁者引初獻 官詣盥洗位 北向立 播笏 盥悅執笏 引詣神位 前北向跪 播笏 三上向獻幣執笏 俯伏與平身 引降復位 行爵獻禮 謁者引初獻 官詣樽所 西向立 爵酒引詣神位前 北向跪 播笏 獻爵執笏 俯伏與小退跪讀祝 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俯伏與平身 引降復位行亞獻禮 謁者引亞獻 官詣盥洗立北向 立播笏 盥悅執笏 引詣樽所 西向立爵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播笏 獻爵執笏 俯伏與平身 引降復位行終獻禮 謁者引終獻 官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悅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酌酒 引詣神位前 北向 跪搯笏 獻爵執笏 俯伏與  
 平身 引降復位 飲福受胙執事者以 爵酌飲酒執事 者持俎進滅神 位前胙肉謁者 引  
 初獻官陞詣 飲福位西向跪 搯笏 執事者以 爵授獻官獻官 受爵飲卒爵以 爵授執事  
 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以胙授獻官 獻官受胙以胙授執事者 執事者受胙 降自東階  
 出門執笏 俯復與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皆四拜 平身 徹饗登祝進徹饗登 四拜  
 獻官皆 四拜平身 望燎祝八以 籩取祝板(毛血)及幣降自 西階詣置干坎謁者引初獻  
 官詣望燎位西向 立祝焚祭文蓋燎 謁者進初獻 官之左白禮畢 遂引獻官出 謁者引祝  
 及諸執事 俱復壇南拜 位四拜 祝以下皆四拜 平身 以次出。

醴祭陳設圖



#### IV. 巫俗信仰

수산리의 무속신앙은 아주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당도 아주 많이 있었다. 우리 조사팀은 당이 있는 곳을 직접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이것 저것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다. 수산리는 본향당인 올웨뚜루 하로산당을 비롯하여 진안내당,칠낭계당,검은모돌 일렛당, 신술당 등이 있었다.

##### 가) 올웨뚜루 하로산당(본향당)

수산 본향당은 '하로산 올웨뚜'이라고 하고, 수산 1리, 2리(고잡이라고도 한다.),고성리,오조리, 성산리 등 다섯 마을에서 섬기는 본향당이다.

“수산리당은 제주에서도 썬 당의 하나다. 이목사 때 불질렀으나 타지 않았다.”고 하는 데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본향당에 대한 믿음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에는 당신상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당시 당집이 허술하여 동네 젊은이들이 장난으로 신상의 목을 빼어 갔으므로 지금 신상에는 머리가 없고 그후 얼마 안가서 그들도 죽었다고 한다. 지금 신당은 50여 평이 되어 보이는 대지에 돌담을 둘렀고 당집은 현무암을 쌓아 올리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한 10칸 정도의 당사이다.

당 안에는 마루를 깔았고, 정면으로 벽 가운데에 매달아 유리문 여닫이를 단 신단이 만들어져 있어 신상을 모시고 있다. 신상은 자손(洞民)들이 바친 흰옷을 입고 있으나 머리가 없는 것이 처량하다. 제수는 흰쌀 돌래떡이나 메밀로 만든 거문돌래 떡이 주이고 쌀, 바다고기, 닭, 계란, 과일, 술 돈, 소지용으로 백지 돼지고기는 꺼리므로 올리지 않고 오조리에서는 굿하기 전 7일간은 육식을 금한다고 한다.

당 굿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갓에 快子 차림 한 신방이 밖에서 “삼천벵멧대 새움”에서 시작된다.삼천벵멧대는 4미터의 푸른 대나무에 위로부터 푸른기, 태극기,흰기,붉은기를 달았다.

② 신방이 당 안에서 북장단에 맞춰 “초감제”가 시작된다.



③ 다음은 (토)지관 든다고 하여 本郷드림(迎神)거리이다. 신방이 도랑춤 추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신의 흉내를 내며 本郷神이 되어 밖에서부터 신당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자손'들이 일어서서 00하며 본향신을 맞이한다. 상,중,하 당골들이 환지를 올리고, 拜禮하고 나면,당 안의 자손들이 수산,고잡,고성,오조,성산의 순으로 역가상에 역가(돈)를 상 위에 놓고 재배한다. 이 거리가 당곳의 정점인 듯하다.

④ 이어 신방이 지장본풀이 입창한다.이어 백뿔기, 팔치바치기가 있다. 그 후에 이어진 점심시간에는 소미와 신방에게서 算을 받은 사람만 남는다.그리고 점심은 돌래떡을 나눠먹을 정도로 간소하다.

⑤ 다음은 신방이 厄맥이를 하였는데, 도액을 막고, 이어서 각 집의 액막음을 하였는데 장닭을 희생으로 썼다.

⑥ 이어서 신방, 무녀들에 의해 삼삼오오 모여서 자손들이 산을 받았다. 바친 쌀로 산을 놓고 홀수면 흥하고, 짝수면 길하다고 한다. 제각기 가족의 수대로 가장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올해 신수를 점쳐 받는다.

⑦ 끝으로 신방이 닭잡아 던지고 술, 떡, 고기 등 제물을 던지고 산 받아 절

하고, 제물을 물린 다음 밖의 삼천뽕땃기를 당 안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신을 신당 안으로 모셨다고 하고 신을 占住 시킨다고 하여 도진거리가 끝났다. 곳이 끝나면 信者들과 서로 인사를 안 하고 헤어진다. 이는 신성성 때문인 듯 하다.

#### 나) 진안 내당(진안 할망당)

수산국민학교 뒤쪽으로 수산진성의 일부가 남아 있고, 약 200년은 되어 보이는 누룩나무를 중심으로 제단을 만든 진안할망당이 있다.

이 당은 旅路를 지켜 주는 신으로 배를 탈 식구가 있는 집에서는 수산리 일대문 아니라 제주 각처에서 찾아와 정성을 드린다. 백색, 녹색, 홍색의 종이나 형겼의 껍백과 제주와 제물을 차려서 촛대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치성을 드린다.

이 때 보통 신방과 함께 간다. 당의 형태는 석원형, 제단형, 신목형이다. 그리고 당 주위에 있는 울타리는 성과 속의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당의 특징은 남자만 다니는 당이었다. 자시 이후 와서 제를 지내는데 특히 남자인 경우는 자일, 묘일에 밥차룡을 가지고 와서 지낸다.

진안 할망당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진성을 쌓을 때 “내참이뭇” 쪽에 돌담을 쌓았으나 자꾸 무너져서 여자를 희생으로 바치고 비로소 축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후로 그 여인을 진안 할망으로 모신다고 한다.

#### 다) 칠낭계당(칠낭계 일땃당)

수산국민학교에서 성읍 방면으로 600미터 정도 가면 위치해 있는데 찾기가 힘이 들었다. 15평 정도의 크기로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당의 특이한 점은 방울할망 족지할망 등 외지에서 가져온 신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 즉 외지에서 여자가 시집을 올 경우, 자신이 모시던 신을 이 곳에 가져와서 계속 모시는 점이다. 메가 2-5그릇인 것으로 신은 2-5명임을 알 수 있다.

라) 검은 무들 일렛당

이 곳은 신술당에서 가져온 당이다. 입구를 중심으로 왼쪽에 족지할망을 모시는 곳, 가운데에는 여드레로 아이들이 부스럼이 날 경우에 이용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토상을 모시는 곳이다. 이처럼 신술당 내에서도 3군데로 나누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마) 신술당

이 곳은 수림형, 갑목녕쿨형, 신술형에 해당된다. 검은 무들 일렛당과 마찬가지로 족지 토산 여드레 3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약 15평 정도의 크기로 마침 우리 조사팀이 찾아간 날 당에 다녀간 흔적이 보였다. 아침에 사용하던 생쌀, 과자, 술, 지전, 과일 등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 이외에 당의 형태는 없지만 일명 처녀당이라는 이름의 당이 있다. 직접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려오는 유래에 의하면,



당신이 처녀여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가져가서 구멍과 같이 생긴 곳을 쭈시면 소원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면 이 당신은 처녀신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곳을 쭈셔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한다.

## V. 個人信仰

수산리의 개인신앙으로는 조왕제, 토신제, 백중제, 칠성제 등이 있었다.

### ① 조왕제

일년내내 집안의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식구들의 생기를 고려해서 스님이나 심방을 데려다가 음력정월에 지낸다. 3일 동안 정성을 들이고, 이 기간동안 금줄을 쳐서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동네에서 상이 난 경우에는 택일날을 미룬다. 개나 고양이 뱀 등이 죽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고, 제일 기간 동안 여자에게 생리가 있을 경우에는 택일날을 미룬다. 제물로는 보통 약간의 떡(시루떡)을 준비한다. 그리고 메는 곤쌀을 준비하고 채소(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무우), 과일(밤, 대추, 비자, 사과, 배), 어류(명태만을 쓴다) 등을 준비한다.

과정을 살펴보면, 참기름불을 3군데 촛불 대신 지펴서, 그냥 꺼져 버리면 일년내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가장 좋은 경우는 불모양이 버섯모양으로 되었을 때이다.

### ② 토신제

대체로 조왕제, 문전제와 같이 지낸다.

제를 진행하는 헌관 역할하는 사람이 3일동안 정성을 지내는데, 생고 삶은 물로 목욕을 해야한다. 제물로 시루떡 (한되짜리 떡판에 준비), 쌀(양푼으로 준비), 산닭을 쓰고 쇠고기(生), 과일 5-6가지를 준비한다. 뒷마당 중 깨끗한 곳을 골라서 정성을 들인다. 집밖으로 제물이 나가서는 안되고, 집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날것은 삶아서 나누어 먹도록 한다.

### ③ 백중제

음력 7월 19일날 마소들의 안녕을 위해서 올리는 개인신앙이다. 원래는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축들의 안녕을 기원했었다.

울췌마루에 놀던 마돈님  
누루못에 놀던 마돈님  
장지동산에 놀던 마돈님  
한못에서 놀던 마돈님

산닭을 희생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돼지를 희생으로 한다.

지금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간단한 제의 형식을 거친 후에 돼지를 삶아서 먹는 즐거움에 더 큰 의의를 둔다.

### ④ 칠성제

밭칠성을 모시는 경우는 드물고 안칠성을 모시는 집은 음력 칠월 칠일 가족의 수명연장을 위해 生氣를 맞추어서 지낸다. 제물로 떡, 메, 고사리, 무우, 미나리, 과일(오과) 등을 준비한다.

